

토론회 녹취록

기록 : 이정숙

- 주제 : 평생교육, 민간영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방안 토론회
- 일시 : 2017. 08. 26(토). 14:00-17:00

■ 참여 패널

- 좌 장 : 윤여각(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기 조 : 채우공(은평구평생학습관 총괄팀장)
- 패널 1 : 박영도(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이사)
- 패널 2 : 김정일(수원 뫼라도학교 이사장)
- 패널 3 : 이기연(재단법인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기획운영팀장)

- 주최 : 광주광역시
- 주관 :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윤여각 교수 (좌장) :

평생교육법이 제정되고 현장에서 작동되어가는 과정에 수정되어야할 부분들도 나오며 평생교육의 법, 제도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평생교육 조직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 전체를 아우르는 연석회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은 그동안 이슈 되어온(논쟁거리) 것들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은평구평생학습관 현장팀장님으로 계신 채우공 선생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기조발제 _ 채우공 :

제 주제를 받고 난감하였다.

저를 부른 이유가 공공에서 실제로 일을 했었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 공공과 민간 영역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절묘하게 어떻게 버무려 가는지 알고 있지않을까 해서 불러주신 것 같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 지금은 160개 이상의 평생학습도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보면 공공이 평생학습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 6대 영역 중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 예전에는 국가나 공공에서 추진한 것들이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문해교육 같은 경우 야학이라든지 민간 영역에서 진행되다가 지금은 공공에서도 많이 이뤄지고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육도 마찬가지다.

직업능력 교육 경우 개인의 목표, 커뮤니티 형성 등 민간에서 많이 이뤄져 왔는데 지금 공공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것,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부분인데 그래서 민간이든 공공에서든 직업능력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

사실, 일반적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민간에서 하든 공동에서 하든 상관이 없다.

본인의 학습욕구를 채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공은 시민의 학습권 확대를 위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민간에서 해 오고 있던 것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며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민간영역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이 민간위탁이 되는지 법령 조사 진행함.

민간위탁은 여러 부분에서 진행될 수 있는데 서울시 경우, 노인, 청소년, 복지, 공원 시설, 영어,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시설 등이 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정부의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공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진행.

실제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추가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이뤄진다.

평생교육의 분야로 볼 때 평생학습관 운영면에서만 보면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서울시평생학습관, 수원시평생학습관, 안산시평생학습관, 하남시평생학습관, 광명시(초기) 지금은 직영체제로 돌아섰다.

2가지 사례를 들어

민간위탁을 통해 적절히 거버넌스를 잘 이뤄낸 수원시평생학습관 사례와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파장이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린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도시 선정 후 2012년도 후 평생학습도시가 되었는데 지정을 받기 위해 전문가들의 계획을 통해 이뤄지나 수원시 경우 마을의 대표성 있는 전문가, 주민, 단체들과 마을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목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은평구의 경우 인구가 50만인데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마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마을길찾기를 하고 발굴된 마을자원을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하는 마을꾸미기,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것을 알리고 넓혀가는 과정에서 마을알리기 등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 갔다.

은평구평생학습의 가장 큰 핵심은 네트워크에 있고 방법으로는 협업과 소통의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다.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각자 역할을 나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슈를 찾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행정에서는 예산은 지원하게 된다.

세대별로 다양하고 의견, 철학 등이 다르기 때문에 평생학습으로 모아내기가 쉽지 않

다. 그래서 최대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야한다. 이 구조를 거치면 시행이 아무말이 없다. 모두가 함께 협의하고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논의한 구조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이 명확해진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잘 이뤄져야한다. 주민이 공공과 일하기는 힘들다. 그 중간단계에서 서로 연결해 조화를 이뤄낸다.

두 번째 사례는 대전 시민대학인데 2013년 시행되었는데 현재는 많이 변화하였다. 당시는 대전에서 대대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 시행하다 보니 민간단체 시설, 프로그램이 줄어들게 되었다. 학습자는 크고 좋고,싼 곳을 찾아가게 되고 민간영역의 강사들도 대전시민대학으로 많이 가게 되었다. 그래서 민간영역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민간들이 자생적으로 이뤄온 것들이 망가지고 더 많은 학습기회를 주는 것에 실패하였다.

중요한 것은 공공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잘 조합해 사람들의 학습 참여를 늘려갈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

대전시민대학 사례를 통해 시사점은 공공에서는 평생학습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큰 전략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직접 운영하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는 것이다. 공공에서는 대의적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성과측면에 있어서도 직접사업의 성과 지표가 아닌 민간과 어떻게 협력을 이뤄내었는지에 대한 측면도 필요하다.

담당공무원의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 역할에 대한 고민을 통해 각자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민간에서는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어떻게 증대시키고 끊임없이 발전할 것인가를 모색해야한다. 서로의 목적이 다르지만 큰 대의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서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광주가 시민의식이 아닌 정치의식이 높다고 본다. 광주가 의외로 민이 소외된 관주도의 성향이 강하다. 민의 중심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위해 서로 만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이사 박영도 :

한국평생교육사협회 본회의에서 조직분과 일을 맡고 있다.

광주평생교육사협회는 평생교육의 특징, 여성과 연령대가 낮다는 점. 앞으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초발제에서 이미 결론을 내어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서로 같이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지금은 평생학습시대라고 합니다. 생애 수직적에서부터 삶의 수평적인 것을 모두 아우른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아우르고 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는 것이죠. 전생애에 걸쳐 학습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고, 지식사회,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고 있다.

앞으로 왜 학습을 해야하느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탈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려면 학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가의 역할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으로서 그 속 구성원들의 삶을 보호하고 삶을 유지해줘야 한다. 그 속에 기저가 평생학습이 중요한 맥락으로 이슈화 되어가고 있는데 평생학습 예산이 국가예산중 0.2% 밖에 되지 않아 허와 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 이곳에서 나눌 것 없는 조그마한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평생학습을 해야 하는 시대맥락에서 국가가 언제나 어디서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체제를 국가가 제공하자고 하지만 실제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민간영역에서 공공의 부재된 곳을 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의 평생교육이 발전해 오고 있다.

교육의 수혜자인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공공이든 민이든 상관없다. 여기 계시는 분은 교수자의 입장에서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민간영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의 역할을 보면 거점센터, 읍면동의 행복학습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잘 굴러가고 작동되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또한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는데 각각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민이 채워가면서 발전을 해가고 있다.

민은 공공영역의 종속적인 관계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공공의 조직과 예산이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하기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하자. 긍정적인 경쟁의 관계가 필요하다. 공공의 역할은 자원의 배분, 정보, 지원의 역할을 하고 민간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프로그램의 배분에 있어서 공공은 허브의 역할로서 실천하고 있는 부분의 힘이 부족할 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민은 활동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에서 강하게 장점을 필역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는 협치라고 쓰고 할 때는 혼자서 한다.

협치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각자가 잘 하는 것을 나누어 가자는 것이다.

민간영역에서 최대장점은 실천의 추진력에 있다. 프로그램으로 실천하고 옮겨가는 발빠름이 장점이다. 공공영역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지연되고 지체된다. 이런 부분

에서 공공영역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민은 오랫동안 가져온 현장성에서 정체성, 자율성, 전문성, 탄력성이 있다.

학력인정제를 통해 민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을 학교교육밖의 교육을 인정해주는 최초의 제도이다. 이런 예를 보면 문해교육을 관이 가져갔다면 가능했을까 자문해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이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협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각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과 민 사이에서도 늘 경쟁하며 콘텐츠도 더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11만 명의 평생교육사가 배출되어 있다. 평생교육 업무를 순환보직에 의해 비전문가가 담당하기도 한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 국가자격이므로 양성된 11만 명에게 일할 수 있는 국가적 배려가 있어야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운여각:

고민1)

민간영역의 것을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오다 보니 문제가 있기도 하였는데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고민2)

공공에서 끌고 가야할 것들, 즉 민간에서 하려다 힘들었던 부분으로 사각지대화 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

뭐라도학교 김정길교장: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시니어들이 활동하는 뭐라도학교 교장입니다. 퇴직 후 평생학습관에서 시니어교육을 받고 뭐라도해보자하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저희 시니어들이 2~3년 동안 우리끼리 배우고 고민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나이 먹은 사람을 시니어라고 합니다. 시니어들이 모여서 노년세대가 우리의 역할, 노인문제, 사회적 부담인데 이를 자산으로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사회의 짐이 힘이 될 수 없을까? 우리가 늘 문제의 당사자인데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없을까, 노인이 사회의 어른, 선배시민으로 역할을 할수 있을까 하며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들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3년 전 시니어 대상 인생수업을 8주차 수업 후 집에 돌아갔는데 관장님이 불러서 뭐라도 학교 이름을 지어주고 1기 20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하고 개교식을 했다.

표어로 뭐라도 배우자, 즐기자, 행하자로 정했다. 우리는 시니어에 의한, 시니어를 위

한, 시니어의 학교로 기본과정, 전문과정, 창작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오늘은 창작과정에서 노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사업단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회공헌과 약간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과정이다. 배우고 노는 과정이다.

시니어 1:1 컴퓨터교실은 학생10명 선생님 10명이다. 우리가 먼저배우고 학생 옆에서 가르쳐주자는 생각이다. 모르면 알 때까지 배우고 넘어간다. 지금은 수강생이 넘쳐도 교실이 없어서 20명 한정으로 운영 중이다. 93세 할아버지도 컴퓨터 배울 수 있다.

추억디자인연구소는 노인들 상담을 합니다.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치유가 됩니다.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앨범을 만들어드리면 과거의 의미 있던 일들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진다. 따복 지원사업으로 100명의 영상자서전을 만들어드리고 있다. 굉장히 즐거워한다.

좋은3과4연구소는 좋은 삶과 좋은 죽음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매주 웰다이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각자 역할을 나눠 교육도 받고 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컨설팅을 받아 다듬고 있다. 연명의료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사전연명의향서 작성 등을 홍보하고 강의하며 지내고 있다.

어울림한마당은 봉사활동으로 각자 잘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활동도 하고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시니어들의 경험을 나누는 방송활동도 하고 있다. 뭐라도카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정보도 교류하고 시, 음악도 나누고 창업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올해는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에 공모해 3개 사업이 당선되기도 하였다.

우리들 교실이야기입니다. 50이 넘으면 가르칠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한 강좌씩 열어요. 자신의 인생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늘 받기만한 존재예요. 사실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인데 노인에게는 가르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우리들 교실은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의 심도가 중요하지 않고 수강생들과 교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라도학교는

우리는 우리가 배울 것을 스스로 기획하고 만든다.

노인이라서 늘 배우기만 하지 않고 가르치는 역할로 학습의 주체가 되자.

자기주도적 학습을 한다. 필요에 의해 학습의 효율도 최고다.

결국, 우리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놀면서 배우고 배우는 것이 일이 되고 조금만 수익도 될수 있도록 역량을 키운다.

졸업이 없는 뭐라도 학교이다. 은퇴 없는 직장, 졸업 없는 학교를 표방하고 있다.

윤여각 :

교육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고민1) 스스로 학습하게, 스스로 가르치게 어떻게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인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교육팀장 이기언 :

광주평생교육사협회가 작년에도 워크숍을 하였었는데 선진시민의식함양을 위한 평생교육균형발전이 주제였고, 올해는 평생교육에서도 민간영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입니다. 협회차원에서 민간영역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협회에서 저희에게 듣고자하는 말씀이 민간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라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할까 고민해 보았다.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토론문에 기록을 해서 광주사정에 맞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공과 민간영역의 균형발전을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시소였다.

지금은 민간영역의 평생교육이 더 많은 힘을 받아야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광주평생교육사협회의 회원, 평생교육사들이 관심을 좀 더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광주의 시정과 정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앞서 시민성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는데 평생교육과 관련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있으신지 궁금하다. 광주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광주시 담당공무원은 평생교육사가 아니며 순환보직으로 인해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마다 평생교육도시다 보니 자치구 담당자는 평생교육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시에는 정작 평생교육사가 없다.

시와 진흥원의 관계에서는 위탁관계에 있다 보니 강력한 요구가 어렵다. 민의 영역에서 강력한 요구를 피력해 주어야 한다.

시의 평생교육 관련 부서가 어떻게 직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광주시는 평생교육팀도 없고, 평생교육담당 주무관 1명만 있다. 팀이 있으면 팀장이 있어서 계장님의 발언은 7급 공무원과 다르다. 진흥원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예산지원요청을 하지만 평생교육 예산 편성에 있어서 타사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민간에서는 **광주시의 평생교육의 정책과 조직구조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주셔야 한다.** 평생교육진흥원이 2013년도 개원해 예산 3억, 직원 3명으로 시작해 독립해 재단법인으로 25억, 직원15명으로 단기간에 많은 발전을 하였다. 여기에는 시의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아직 부족한데도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생각이신거 같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현재시점에 광주시의 평생교육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시는가?

공공의 교육에 있어서 공공성이 중요한데 여기에 광주 평생교육 이만하면 되는가? 이

에 대한 생각을 광주평생교육사협회 및 평생교육사분들이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윤여각:

사실 관하고 민하고 직접만나기는 쉽지 않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요한데 평생교육사협회라고 할 수 있다.

고민1) 중간지원조직(평생교육사협회)이 관과 민을 어떻게 매개할 것인가?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은 힘이 없다. 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힘이 생길 수 있다. 그 힘은 투표로 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의회는 일반 주민에게 약하다.

고민2) 협회는 의회와 국회차원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 질의응답

질문1

우리가 법률제정을 통해 법을 만들고 고치고, 적절한 시행령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활동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생각과 청원활동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박영도) 문재인정부 들어 국정과제 52번째가 비문해학습자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복지차원의 교육과 k-mook를 통해 누구나 학습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하였다. 그러나 평생교육사협회가 모여 합의한 것이 공공영역에서 평생교육의 고용을 확대하라. 평생교육의 직렬화촉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평생교육사가 11만이고 공공영역에 소수가 자리하다보니 이를 위한 필요성을 제시하기에 목소리가 약하다. 그래서 지역단위에서 **국회와 의회에 적극적인 평생교육사 의회 진출을 통해 평생교육사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윤여각) 국회나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맡겨두면 안될 것이다. **평생교육 관련해 의회원들이 학습할수 있는 계기를 통해 그들과 소통하는 구조를 통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한다.**

질문2

마을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을 내에서 활동가와 주민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을 지속적으로 함께 갈수 있는 방법에 대해 늘 고민하게 된다. 뭐라도 학교는 참여자분들에게 소소한 지원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김정길) 지원에 대한 고민인데, 2년의 과정을 수원평생학습관에서 공간을 마련해 주시니 놀기만 했는데 지역과 관계를 맺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처음 지원사업을 도전해 보기도 했지만 시니어이다 보니 서류작성부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늘 앞으로의 지원과 운영방향에 대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박영도) 저희도 문해학교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가 45명 정도 된다. 이분들에게 교통비수준에 적은 비용만 드리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와 함께 10개월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 그분들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야 할 것 같고, **평생학습이 언제까지 수혜자들에게 무료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야 한다.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녹여낼 수 있는 도덕적인 비용을 책정해야한다고 본다.** 교육의 수혜자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제공자는 그에 맞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윤여각) **조직이 갖는 사명으로 다양한 부처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두루 살펴보시면 좋**

겠다.

질문3

인생2모작 수료 후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 '통통통 학교'를 설립 진행 중입니다. 열정을 품고 공부하시어 자체 역량을 키우자. 그리고 의회의원들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협력구조를 이루어 가자.

채우공) 법적인 부분, 지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 의견을 말씀 드리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평생교육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많은 평생교육사의 자리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읍면동평생학습센터에까지 평생교육사 채용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진행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서명을 받고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2만명 정도 제안을 받고 진행되었어야 한다. 실제로는 2,000명정도 서명을 받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평생교육사 자신 스스로가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있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의회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일반적으로 주민이 되어야하고 주민들이 설득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직접적 수혜를 입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교육사들은 그들이 수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평생교육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분들의 지속되는 이유는 철저하게 철학에 대한 공감이라는 것이다. 이에 동의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게 된다. 그들이 원하는 교육, 연수, 밥 먹을 수 있는 기회, 서로 얘기 할 수 있는 구조, 스스로 하는 일이 돈이 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의미를 찾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

얼마나 연대하고 할 것인가? 에 따라 힘이 생긴다.

질문4

연대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단체 간 네트워크가 활발하지 못하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방안에 대해 궁금하다.

채우공) 네트워크 사실 굉장히 어렵다. 사실 누가 해주시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단체나 주체가 손을 내밀고 시작을 해야 한다. 저희는 일일이 찾아가고 설득하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주체가 됨을 이야기하였다. 앉아서 고민만 하지 말고 막걸리 한통이라도 들고 돌아다니라고 말한다. 누군가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어야 한다. 지자체나 특정 단체가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중심이 되시면 된다.

지역에서 이제 관과 민이 만나는 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냥 무작정 가지 말고 꺼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만나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이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송형길)

협치라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실현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보다 시청과 진흥원이 손을 내밀어야한다.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갈 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와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십사 끝으로 부탁 말씀 드립니다.